

예상 갠 장기전...출구도 끝도 안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봄에 대결전... 1~2년 더간다 예측

러시아군 사상 10만~20만 추산

우크라 민간인 8300여명 사망

서방 대 친러 '신 냉전 시대' 격화

오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을 맞는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의 무력 분쟁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참혹한 파괴, 인도주의적 재난을 야기했지만 현재로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결전'이 봄에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쟁 1년, 얀치락워치락 전환 = 지난해 2월 24일 새벽, 러시아는 2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해방하겠다고 '특별 군사 작전'을 전격 개시했다.

우크라이나는 결사 항전이다 서방 지원에 힘입어 수도 키이우를 지키고 개전 후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대거 탈환하면서 전세를 역전 시켰다.

그러나 겨우내 전열을 재정비한 러시아가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면서 전쟁이 또다시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키이우를 지켜낸 1단계(지난해 2~3월), 러시아가 점령지를 꾸준히 확대한 2단계(4~7월),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선 3단계(9~11월)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전초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전역을 빠르게 돌파했고 순식간에 키이우 외곽에 도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고속기동포 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비롯한 장거리 무기를 지원받는 등 착실히 전력을 모았고, 9월 들어 동북부 하르키우주를 대부분 수복하며 일거에 전황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우크라이나는 여세를 몰아 11월에는 남부 요충지 헤르손까지 수복하며 키이우 수성 후 최대 전과를 거뒀다.

하지만 군사 작전이 어려워지는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았고 러시아는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및 운송 기반시설을 집중 공습, 우크라이나의 작전 역량을 약화시키면서 동원병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공세로 재전환했다.

◇민간인 피해 급증=양국 간 전면전이 1년간 계속되면서 양국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개전 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6919명이 숨지고 1만107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민간인 사망자가 8300명, 부상자는 1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이를 집계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또 이번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난민 사태를 일으켰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4100만 명의 약 3분의 1인 1300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고, 이 중 약 800만 명은 해외로 떠났다.

군 피해도 막대하다. 최근 미국과 서방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러시아군 사상자는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달한다. 1년간 사상자가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 사상자(약 2만5000명 추산)의 4~8배에 달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에 못지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키이우경제지구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재건 사업 비용은 1조

달러(약 12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0.4% 감소했다.

◇신냉전 시대, 안보지형 재편=우크라이나 전쟁은 '신(新)냉전 시대'의 본격적인 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무엇보다 서방 대 친러로 대변되는 반(反)서방,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세력의 지정학적 대결구도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층 선명해졌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대(對)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주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냉전 시대 종식 이후 역할론에 회의감마저 제기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전선을 확장하며 모처럼 존재감을 과시했다. 나토는 작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22년 전략개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 반대편에선 상대적으로 서방 동맹에 비해 '동상이몽' 관계로까지 평가절하되던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관계 재정립에 나서며 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앞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에 즈음해 반전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중단 브라질 삼바 축제 3년만에 열린다

상파울루시 전역 축제의 장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브라질 최대 삼바 축제가 지난 17일(현지시간) 3년 만에 정상 개막됐다. 카니발 열기로 일상의 공간은 이미 축제의 공간, 자유와 일탈의 공간으로 변했다.

브라질 카니발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앞두고 해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삼바 축제다.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삼바 전용 경기장인 삼보드로무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의상의 삼바 퍼레이드는 브라질 카니발의 일부일 뿐이다.

일상의 공간에서 각자의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옛세간의 꿈같은 시간이 바로 브라질 카니발의 진짜 풍경이다.

고대 로마의 왕처럼 왕관 장식을 하고 거리로 나

온 파울루 엔히키(35)는 "카니발은 자유와 다양성의 축제인 만큼, 모든 게 섞여 있는 브라질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축제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삼바 리듬이 흘러나오는 커다란 퍼레이드 카는 삼바, 록, 일렉트릭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중 한 장르를 라이브로 연주하면서 '블로쿠'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블로쿠를 골라 퍼레이드 카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며 다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흥겨워했다. 이번 카니발 기간 상파울루시에서만 644개의 블로쿠가 진행된다.

다. /연합뉴스



요비 앞서 비통해하는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 유족이 1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동남부 아드리아에 있는 묘지의 한 묘비 앞에서 고인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지율 3년만에 최저

한 달 만에 2%p 낮아져 32%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는 19일 주간 르주르날 튀디망슈 의뢰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인 32%만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만족한다고 답했다.

Ifop가 한 달 전 실시한 여론조사 때보다 2%포인트(P) 낮아졌으며, 프랑스에 코로나19 대응이 확산하기 직전이 2020년 2월 이후 최저다.

우파 공화당(LR)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12%p 떨어졌고, 지난 대선 1차 투표에서 그를 뽑았다는 응답자 사이에서도 4%p 빠졌다.

프레데리크 다비 Ifop 소장은 프랑스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프랑스 대통령이 지탱해야 하는 대가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Ifop는 지난 2월 9~16일 18세 이상 성인 1952명을 대상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오차 범위는 ±1.0~2.3%p다.

2017년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42기에 달하는 연금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개혁을 추진하다가 2019년 12월 총파업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으로 모든 논의를 중단했다가 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해 정년 연장을 골자로 다른 버전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정년은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올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 43세로 늘리기를 원한다.

하원은 지난 2주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법안을 심의했으나,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너무 많아 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18일 토론을 종료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

5500만원 짜리 조각 관람객 실수로 박살

현존 최고가 기록 제프 쿤스 작품

생존 작가 중 최고가 판매 기록을 보유한 미국의 유명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이 'VIP 관객'의 실수로 산산조각이 났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미국 마이애미에서 '아트 윈우드' 아트페어 개막을 맞아 열린 VIP 프리뷰 행사에서 한 여성 방문객이 쿤스의 '풍선개'를 손으로 두드려 받침대에서 떨어뜨렸다.

4만2000달러(약 55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 이 도자기 작품은 최소 100조각 이상으로 깨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처음엔 계획된 행위예술인 줄 알았던 다른 관객들은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오고 이 여성의 얼

굴이 새빨개지는 것을 보고 그제야 사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쿤스가 만든 '풍선개' 작품은 모두 수천 점으로 다양한 색깔과 크기,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깨진 작품은 높이 40cm, 길이 48cm의 파란색 자기 조각상이다. 지난 2013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5840만 달러에 팔린 오렌지색 '풍선개'는 쿤스에게 살아있는 작가 중 최고 낙찰가 기록을 안겨줬다. 이 기록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예술가의 초상' (9030만 달러)에 의해 깨졌으나, 쿤스의 또 다른 작품 '토끼'가 2019년 5월 9천107만5000달러로 다시 찾아왔다. 아트페어에서 박살이 난 '풍선개' 조각들은 상자에 담겨 보험사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지만, 깨진 조각도 비싸게 팔릴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